

PA-092

충북육성 ‘청풍수수’ 기계화 재배에 적합한 육묘기간

이재웅^{1*}, 문혜림¹, 김익제¹, 김영호¹¹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길 46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서론]

충북에서 육성한 ‘청풍수수’는 2008년 K258972 계통명으로 수집되어 2019년 품종등록되었으며 수량성이 10a 당 359kg으로 다수성 품종이다. 충북의 2019년 수수 재배면적은 641 ha으로 국내 재배면적 1,547 ha의 생산면적의 41%, 생산량의 49%를 차지하는 수수의 최대 생산지이다. 최근에는 수수의 콤바인 수확이 가능한 초장 1.8m 이하의 품종이 육종되어 범용콤바인을 이용한 수확작업의 기계화율은 90% 이상으로 높은 반면, 파종단계의 기계화율은 10% 미만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수수 기계이식 재배를 위한 적정 육묘일수는 온실에서 약 15~20일로 묘 길이는 20cm 정도가 적당하며 육묘기간이 20일이 초과하면 수량성과 안정성이 감소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시험은 신품종 청풍수수에 대한 육묘기간에 따른 묘 생육을 비교하여 기계이식에 적합한 육묘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20년 충북 청원군에 위치한 무가온 비닐하우스에서 수수 ‘청풍수수’를 시험재료로 시험을 실시하였다. 파종은 트레이 규격 200공을 사용하였으며 파종시기는 5월 22일 등 3처리를, 육묘기간은 10일, 15일, 20일 3처리를 두었다. 바닥재는 다목적 건조대, 부직포, 보온재를 사용하여 육묘기간에 따른 규격묘 생산율, 지상부 및 지하부 생육과 뿌리 엉김을 등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수수 기계이식에 적합한 규격묘의 길이인 20cm 크기로 키우는데 중부지역인 청원군의 무가온 비닐하우스 조건에서 5월 22일 파종에서는 20일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6월 2일 파종 및 6월 12일 파종에서는 15일이 소요되어 파종기에 따라서 육묘기간을 달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뿌리엉김은 파종 후 10일에서는 40~60%의 범위를 나타내 기계이식이 불가능한 반면, 파종 후 15일 이후에는 90% 이상의 범위를 나타내 기계이식에 알맞은 지하부 생육을 보였다. 육묘에 적합한 바닥재는 보온재가 수분 보유력이 가장 우수하여 지하부의 뿌리 엉김이 가장 양호하였으며 부직포, 다목적건조대 순으로 양호한 생육을 보였다. 따라서 충북지역의 수수 파종기가 6월 상순인 것으로 가정하여 볼 때 기계이식에 적합한 육묘기간은 15일, 바닥재는 보온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저자: Tel. 043-220-5561, E-mail. leepodo@korea.kr